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

옥 정* 오윤희 정현옥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본 연구는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의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비교분석하였다. 비행집단은 소년원에 수감중인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험집단은 일반 인문계 고교생 중 K-YSR의 외현화 문제행동척도의 상위 15%에 해당되는 50명이고, 정상집단은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일반 인문계 고교생 중 50명을 무선표집하여 구성하였다. 세 집단 모두 연령분포는 15-19세였다. 질문지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K-YSR, 애착유형척도, 부모양육행동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년원과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집단별 애착유형분포는 비행집단이 몰입형, 무시형, 안정형, 두려움형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정상 및 위험집단은 안정형, 몰입형, 무시형, 두려움형 순이었다. 부모양육행동의 비교에서 정상집단에 비해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이 부모의 애정과 합리적 설명을 유의하게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이 깊은 청소년기 애착유형이나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탐색하였고, 특히 비행집단으로 심화되기 전 위험집단에 대한 개인 및 가족적 차원의 예방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애착, 부모양육행동, 청소년비행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옥 정 /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 서울 종로구 평동 108 /
FAX: 02-2001-2211 / E-mail: oj256@unitel.co.kr

청소년 비행은 성인의 범죄행위와 분리하기 위한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할 뿐 아니라 비사회적인 행위인 불량행위 및 장애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의 한 부류로 연구되고 있다(황규숙, 1999). 이러한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가정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복합적 여러 변인 중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요인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Rey & Plapp, 1990; Wasserman, Miller, Pinner, & Jaramill, 1996).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크게 애착관계와 부모양육행동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청소년기 애착관계는 영아기나 아동기와 달리 표면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며, 적극적이고 목적적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Allen, Hauser, Bell, & O'Connor, 1994). 또한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들며 추상화 능력이 생기면서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기초를 확고하게 갖게 되고(Main, Kaplan, & Cassidy, 1985), 부모와 “목표-수정적 협력관계 (goal-corrected partnership)”를 더 세련되게 다룰 수 있게 된다(Bowlby, 1973; Kobak & Duemmler, 1984).

이러한 청소년기 애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여전히 부모나 애착대상은 안정기저(secure base)로 남아있으면서, 스트레스 상황시 애착체계가 재활성화되어 부모 및 애착대상에게 도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구한다(Ainsworth, 1989).

한편 애착의 측면에서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볼 때, 이는 단순히 심리적 고통이나 정신병리의 표현일 뿐 아니라 부모-청소년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변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외현화 문제행동 그 자체가 애착행동으로 부모의 도움이나 개입을 촉발시킨다고 보았다(Allen & Land, 1999; Kobak, Cole, Ferenz-Gillies, Fleming, & Gamble, 1993).

애착유형과 정신병리와의 연관성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 중 몰입형(preoccupied)은 내재화 증상과 관련되는 반면, 무시형(dismissing)은 외현화 증상과 연관된다고 한다(Rosenstein & Horowitz, 1996). 그러나 Allen

과 Moore와 Kupermic 및 Bell의 연구(1998)에서는 몰입형 애착유형이 청소년 비행과 연관되며, 특히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남자청소년의 경우 몰입형 애착유형은 비행문제와 연관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비행같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애착유형이 무시형인지 몰입형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치되는 결론은 없다. 국내에서도 부모자녀관계 측면을 통해 애착특성을 유추하였던 연구는 있었으나(권지은, 1998), 애착유형과 청소년의 비행문제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에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의 또 다른 측면인 부모 양육행동과 비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부모의 낮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도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Rey & Plapp, 1990). 또한 적대적, 처벌적, 거부적, 과잉통제적이며 수치감을 조장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공격성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rris, Arrindell, & Eisemann, 1994). 이외에도 최근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분석에서 신체적 학대 및 방치(neglect)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울증 뿐 아니라 품행장애 및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결정적인 위험인자로 밝혀졌다(Cicchetti & Toth, 1995).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sserman et al., 1996).

한편 국내에서는 권지은(1998)이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비행에 관해 이루어진 국내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가정요인중 구조적 결손 그 자체보다는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불화변인 등이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그밖에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은 정상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김현수, 김현실, 1997), 부모 모두의 돌봄이 적고 지나치게 과잉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민, 한성희, 1997). 특히 모

의 양육태도보다 부의 과잉보호와 정신병리가 자녀의 비행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진혜경, 김경빈, 이종일, 1998; 한상우, 오창근, 한선호, 1998).

이러한 비행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일관성 여부, 혹은 돌봄과 과잉보호의 두차원으로 구성된 단순한 평가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양육태도의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양육행동의 단순한 측면만을 고려한 연구는 후에 치료적 함의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수감된 비행청소년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정상 청소년들을 통제군으로 비교하는 데 그치는 수준으로, 실제 비행화할 우려가 있고 예방적 개입이 중요한 위험집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열거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여 청소년 비행의 측면에서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소중인 비행집단과 일반청소년 중에서 잠재적으로 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을 선별하여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비행집단. DSM-IV의 품행장애 진단준거를 만족하는 서울소년원에 재소중인 15-19세의 남자청소년 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부모 모두 조기에 사망한 경우와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50사례로 최초 표집대상의 60.24%이었다.

누락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수감인 경우는 전체의 44%, 두 번이상인 56%로, 첫 번째 수감이 60%를 차지한 연구대상군에 비해 재수감의 비율이 높았다. 범죄 종류의 측면에서도, 누락자의 경우 절도가 48%, 폭력 및 강간이 38%로, 연구대상군의

66%가 절도로 수감중임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를 보이는 경우였다.

위험집단과 정상집단. 허묘연(2000)의 연구에서 정신병리로 인해 임상장면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서울 소재 일반 인문계 고교생으로, 지역별, 남녀공학별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한 15-19세의 남자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험집단은 현재 일상생활 및 학교 적응에 현저한 저하가 있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탈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 등 비행과 유사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잠재적으로 비행화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기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이하 K-YSR)의 외현화 문제행동 보고를 기준으로 표준점수 60점 이상(백분위 85점)에 해당되는 자료 중 50사례를 우선 표집하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기 정신병리의 위험집단을 변별할 때 Child Behavior Checklist(CBCL)상 표준점수 60점이 민감하고 타당한 분류점수였다는 것에 근거하였다(Biederman, Faraone, & Doyle, 1993; Willens, Biederman, Kiely, Bredin, & Spencer, 1995). 정상집단은 문제행동을 보고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K-YSR의 내면화, 외현화 척도 모두 표준점수 55점 미만의 해당하는 자료 중 50사례를 우선표집하였다.

측정도구

인구통계학적 질문지.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년, 부모의 학력 및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해 대부분 중류라고 대답하는 집중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류, 중류의 상, 중류의 중, 중류의 하, 하류의 5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자기보고형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 Report-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하은혜 등(1997)이 한국형으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위축, 신경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의 문제, 비행, 공격성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1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마다 '전혀 없다'는 0점, '가끔 보인다'는 1점, '매우 심하다'는 2점 등 3점 척도로 평가되며, 긍정문항을 제외한 전체 문제행동중 후군을 합산한 총문제행동 점수는 0점에서 202점까지이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63에서 .85까지로 양호하였고, 척도간 상관을 통해 확인된 수렴타당도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r = .39$ 에서 $r = .97$ 까지, 여자 청소년의 경우 $r = .34$ 에서 $r = .97$ 로 나타났으며, K-CBCL과의 상관정도로 알아본 구인타당도는 $r = .52$ 로 나타났다.

자기보고형 애착유형척도(Self-report Attachment Style: SAS).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작한 애착 4범주 척도로, 김은정과 권정혜 (1998)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관계형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네 개 항목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여, 안정형(secure), 무시형(dismissing), 몰입형(preoccupied), 두려움형(fearful)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안정적이며, '무시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형으로 자기에 대해 긍정적이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다. '몰입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며,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 '두려움형'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봐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는 유형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척도 부모의 양육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밀관성의 8요인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인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8에서 .86이었다. 요인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한다. '합리적 설명'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 남는 결과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이며,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비밀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절차

비행집단의 경우 연구자가 서울 소년원의 협조에 직접 방문하여 집단으로 실시하여 수거하였고,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의 자료 역시 허묘연(2000)이 서울 소재 3개의 일반 인문교를 선정하여 협조를 구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여 얻었다. 질문지는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각기 다른 순서로 제시되었고, 양육행동 척도 역시 실시대상 중 받은 아버지 질문지를 먼저, 나머지 받은 어머니 질문지를 먼저 제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비행집단의 평균 연령은 16.9세(표준편차 .97), 위험집단은 17.4세(표준편차 .54), 정상집단은 17.2세(표준편차 .68)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비행집단이 중의 중(40%)과 중의 하(32%)수준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은 중의 중수준에 각각 66%, 72%로 집중분포되어 있어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chi^2(8, n=150) = 22.13, p<.005$). 부의 학력수준도 비행집단이 무학(4%), 국졸(22%), 중졸(34%), 고졸(24%)의 낮은 학력수준에 분포되어 있으나,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은 고졸이상이 모두 90%를 차지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다($\chi^2(10, n=150) = 48.82, p<.001$). 모의 학력수준 역시 비행집단은 무학(8%), 국졸(18%), 중졸(36%), 고졸(30%)로 저학력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위험집단과 정상 집단은 각각 80%, 86%이 고졸이상의 학력수준에 해당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0, n=150) = 32.02, p<.001$).

그외에도 부의 직업군에 있어, 위험집단은 주로 단순노동직(18%), 자영업(18%), 농업업(14%), 기술노동직(14%), 무직(8%)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 반면,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은 기술노동직(30%, 22%), 사무직(8%, 22%), 행정관리직(16%, 12%)의 순으로 나타났다($\chi^2(22, n=150) = 64.26, p<.001$). 모의 직업군 비교에서, 비행집단의 경우 전업주부비율이 32%로 위험집단(70%)과 정상집단(66%)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그 외 자영업(26%), 단순노동(10%), 농업업(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chi^2(18, n=150) = 45.39, p<.001$).

이처럼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및 직업군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독립변인이 유의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공변량분석을 통해 집단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공변인 중 사회경제적 지위나 부모학력 변인은 개념적으로 양적 변인화할 수 있으나, 범주변인인 부모의 직업군은 총 12개의 무의미변인(dummy variable)을 이용하여 연속변인화하였고 이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가족구조

	비행집단 n=50	위험집단 n=50	정상집단 n=50
피험자연령 (평균±표준편차)	16.9±.97	17.4±.54	17.2±.68
사회경제적지위			
상	1 (2%)	1 (2%)	1 (2%)
중의 상	7 (14%)	10 (20%)	2 (4%)
중의 중	20 (40%)	33 (66%)	36 (72%)
중의 하	16 (32%)	5 (10%)	11 (22%)
하	6 (12%)	1 (2%)	0 (0%)
부의 학력			
무학	2 (4%)	0 (0%)	0 (0%)
국졸	11 (22%)	1 (2%)	1 (2%)
중졸	17 (34%)	4 (8%)	4 (8%)
고졸	12 (24%)	18 (36%)	24 (48%)
대졸	2 (4%)	23 (46%)	20 (40%)
대학원졸	1 (2%)	4 (8%)	1 (2%)
모의 학력			
무학	4 (8%)	0 (0%)	1 (2%)
국졸	9 (18%)	2 (4%)	1 (2%)
중졸	18 (36%)	8 (16%)	5 (10%)
고졸	15 (30%)	27 (54%)	33 (66%)
대졸	3 (6%)	11 (22%)	10 (20%)
대학원졸	1 (2%)	2 (4%)	0 (0%)

들 공변인을 동시에 통제하였다.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문제행동 비교

집단간 문제행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즉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업군을 공변인으로 두어 통계학적으로 통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행집단은 위축($F(2, 147)=3.49, p<.01$)과 신체증상($F(2, 147)=3.33,$

표 2. K-YSR에 나타난 집단간 문제행동의 차이¹⁾

문 제 행 동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	F	Scheffe ²⁾
	n=50	n=50	n=50		
위 축	56.03 (7.97)	53.21(4.12)	52.33(5.49)	3.49*	D>N
신 체 증 상	56.75 (9.48)	54.56(5.20)	52.78(4.19)	3.33*	D>N
우 울/불 안	55.27 (7.74)	53.97(3.63)	52.16(3.51)	3.14*	
미 성 숙	53.99 (7.80)	55.42(5.04)	51.95(3.65)	4.81**	R>N
사 고 문 제	54.26 (6.81)	59.20(6.74)	53.06(6.01)	11.89***	R>D, N
주 의 집 중	55.51 (6.85)	57.50(6.83)	52.77(4.62)	5.87**	R>N
비 행	68.48 (8.03)	59.14(7.14)	53.44(4.99)	39.73***	D>R>N
공 격 성	57.38 (7.12)	63.57(4.69)	52.63(3.23)	43.64***	R>D>N
내 재 화	54.12(10.88)	52.39(4.66)	48.91(6.20)	4.74*	D>N
외 현 화	61.54 (9.38)	63.20(4.03)	50.85(6.70)	39.38***	R, D>N
전체 문제행동	58.50(10.11)	57.66(4.61)	49.14(5.65)	46.04***	D, R>N

1) 표 2는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업군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결과로 조정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짐.

2) 사후검증결과 (D=비행집단 R=위험집단 N=정상집단)

* $p < .05$. ** $p < .01$. *** $p < .001$.

$p < .05$ 에서 정상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위험집단과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울 및 불안($F(2, 147)=3.14, p < .05$)의 경우 사후검증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내재화 문제행동($F(2, 147)=4.74, p < .05$)에서는 비행집단이 정상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위험집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험집단은 전체 문제행동($F(2, 147)= 46.04, p < .001$)과 외현화 문제행동($F(2, 147)= 39.38, p < .001$)에서 비행집단과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집단보다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비행문제에서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순으로 높게 보고된 반면($F(2, 147)=39.73, p < .001$), 공격성은 위험집단, 비행집단, 정상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F(2, 147)=43.64, p < .001$).

또한 위험집단이 비행집단이나 정상집단에 비해 사고문제를 유의미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며($F(2, 147)=11.89, p < .001$), 미성숙 문제 ($F(2, 147)=4.81,$

$p < .01$)와 주의집중의 어려움($F(2, 147)=5.87, p < .01$)도 정상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애착유형 비교

집단별 애착유형 분포는 그림 1과 표 3에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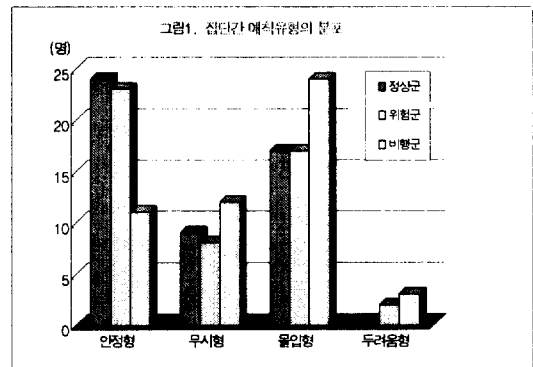


그림 1. 집단간 애착유형 분포

표 3.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애착유형 빈도

	애 착 유 형				총 계
	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	
정상집단	24 (48%)	9 (18%)	17 (34%)	0 (0%)	50 (100%)
위험집단	23 (46%)	8 (16%)	17 (34%)	2 (4%)	50 (100%)
비행집단	11 (22%)	12 (24%)	24 (48%)	3 (6%)	50 (100%)

있다. 비행집단에서 몰입형(preoccupied)이 48%로 가장 많았고, 무시형(dismissing)이 24%, 안정형(secure)이 22%, 두려움형(fearful)이 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집단과 정상집단에서는 안정형이 각각 46%와 48%로 가장 높으며 몰입형이 모두 34%, 무시형이 각각 16%와 18%, 두려움형이 4%와 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착유형 분포의 통계적 검증결과, 정상집단과 비행집단간 애착유형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chi^2(3, n=100)=9.45, p<.05$), 정상집단과 위험집단간($\chi^2(3, n=100)=2.08, ns.$), 비행집단과 위험집단간($\chi^2(3, n=100)=6.43, ns.$) 애착유형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부모양육행동 비교

세 집단간 부모 양육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공변량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상집단은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에 비해 애정($F(2, 147)=7.44, p<.001$)과 합리적 설명($F(2, 147)=6.00, p<.01$)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비행집단과 위험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역시 정상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애정($F(2, 147)=15.04, p<.001$)과 합리적 설명($F(2, 147)=11.21, p<.001$)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집단과 위험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

표 4.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의 집단간 차이¹⁾

양육행동	아 버 지					어 머 니				
	비행	위험	정상	F	Scheffe ²⁾	비행	위험	정상	F	Scheffe ²⁾
	n=50	n=50	n=50			n=50	n=50	n=50		
애 정	12.93	14.39	16.98	7.44***	N>R,D	12.83	11.42	16.73	15.04***	N>R,D
합리적 설명	10.91	11.90	13.94	6.00**	N>R,D	11.36	10.20	14.13	11.21***	N>R,D
학 대	10.14	7.96	8.65	2.72		9.39	8.33	8.02	2.36	
과잉 간섭	15.53	14.87	14.39	0.53		15.15	16.93	14.96	2.57	
과잉 기대	13.93	14.86	14.59	0.35		13.24	15.55	14.34	2.37	
감 독	9.67	10.53	10.71	1.19		10.53	9.11	9.57	1.85	
방 치	8.90	9.19	9.39	0.28		8.52	8.58	8.61	0.01	
비일관성	8.04	8.13	7.80	0.25		8.32	8.48	7.76	1.06	

¹⁾표4는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업군을 공변인으로 통제한 공변량분석결과로 조정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짐.

²⁾사후검증결과 (D=비행집단 R=위험집단 N=정상집단)

* p<.05. ** p<.01. *** p<.001.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수감중인 비행집단과 일탈 행위, 비사회적인 행동문제를 보이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법적 처벌의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위험집단, 그리고 정상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애착유형과 부모 양육행동간 차이를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집단은 외면화 문제뿐만 아니라 위축, 신체증상 등의 내면화 문제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한상우 등(1998)의 연구에서 재소중인 비행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해 죄책감이나 불안감, 긴장감이 유의하게 낮았던 것과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비행집단의 내면화 문제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인해 이차적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청소년의 비행문제 자체가 내면화 문제와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는 청소년기 정신병리의 표현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험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공격성의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 사고문제나 주의집중력 등 전반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 및 예방적 개입이 우선되어야 할 대상임이 시사된다.

둘째, 정상집단과 위험집단의 애착분포는 안정형, 몰입형, 무시형, 두려움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서구문화와 달리 무시형보다는 몰입형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부모와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는 한국문화권의 양육태도에 기인하며 비슷한 문화권인 일본과 이스라엘의 경우와 일치하였다(Ijzendoorn & Sagi, 1999). 반면, 비행집단은 몰입형, 무시형, 안정형, 두려움형 순으로 안정형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애착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외면화 문제행동은 몰입형 애착유형과 더욱 연관이 깊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Allen et al., 1998;

Allen & Land, 1999).

그러나 집단간 애착유형분포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 정상집단과 비행집단간 애착유형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위험집단과 다른 두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위험집단의 기술적인 분포는 정상집단의 분포와 유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집단 특유의 애착유형분포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사례수 제한과 주관적 보고에 의한 애착유형분류의 문제점이 극복된 후속연구에서 각 집단별 특유의 애착유형이 다시금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비교에서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은 부모 모두에게서 정상집단에 비해 애정과 합리적 설명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에게 낮은 애정과 합리적 설명이라는 동일한 변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한 한쪽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비행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진혜경, 김경빈, 이종일, 1998; 한상우, 오창근, 한선호, 1998). 또한 비일관적이고 과잉 보호하는 양육행동이 비행과 연관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지만(김현수, 김현실, 1997; 최경민, 한성희, 1997), 온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이 일탈 행동을 예방한다는 기존의 결과들을 지지하였다(Cicchetti & Toth, 1995; Reiss et al., 1995; Wasserman et al., 1996).

이상의 결과는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간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얻어진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행문제가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도 연관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은 분석결과에서 부모의 학대가 비행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아버지의 감독 역시 정상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제 여부에 따른 연구결과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정보출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애착관계와 부모양육행동자료만 사용되어, 실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객관적 탐색이 다소 미흡하므로 부모나 교사들의 자료도 함께 사용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연구대상이 남자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적이므로, 여자청소년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방법에서도 집단시행된 자기보고식 검사도구의 제한점이 드러났다. 특히 비행집단의 경우 재범비율과 심각한 범죄비율이 높을수록 불성실한 답변으로 자료분석에서 누락되어, 반복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범법행위를 보이는 비행청소년들이 연구대상에서 일부 제외되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제한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행집단의 수감상태가 자기보고식 검사반응에 영향을 주어, 위축, 신체화 등의 내면화 문제를 많이 보고하며 기타 외현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 약화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에서 정상집단과 위험집단을 선별한 후 소년원에 수감중인 비행집단과 직접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애착유형과 부모의 다양한 양육행동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수준 및 직업군 등이 비행집단을 위험집단 및 정상집단과 구별해 주었다.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서, 정상집단에서 안정형 애착비율이 높은 반면, 비행집단에서는 몰입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와의 안정애착이 비행문제와 부정적인 관련성을, 몰입형이 비행문제와 정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애정과 합리적 설명이 결여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비행문제의 유무와 깊게 연관되므로, 비행의 예방적 개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양육행동의 측면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집단에 대

한 함의이다. 위험집단이 비행집단에 비해 오히려 공격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며 미성숙, 사고문제나 주의집중력 등 전반적인 적용의 어려움을 주관적으로 많이 호소하고 있다. 또한 애착유형분포에서 정상집단과 비행집단간 차이가 뚜렷한 반면, 위험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에서도 정상집단에 비해 애정과 합리적 설명이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비행집단과 구별되기는 어렵다. 즉 위험집단은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 가족의 구조적 측면이 비행집단보다 더 양호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행집단과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변인은 찾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서 위험집단이 비행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비행집단이 심각한 범법행동으로 인해 기관에 수용되어 있어 치료적 개입에 어려움이 따르는 반면, 위험집단의 비행 및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그야말로 부모의 도움과 개입을 요구하는 애착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범법행위를 통해 비행집단으로 분류된 후 치료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사전에 학교장면에서 위험집단을 선별하여 비행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예방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지은 (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김헌수, 김현실 (1997). 한국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57-69.
- 진혜경, 김경빈, 이종일 (1998). 청소년 품행장애와 부

- 모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1), 67-81.
- 최경민, 한성희 (1997). 품행장애 청소년에서의 우울, 불안증상과 부모양육특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1), 83-91.
- 한상우, 오창근, 한선호 (1998). 재학생과 재소중인 비행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신경정신의학*, 37(5), 962-971.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규숙 (1999). 부모양육 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319-335).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Allen, J. P., Hauser, S. T., Bell, K. L., & O'Connor, T. G. (1994).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s of adolescent ego 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65, 179-194.
- Allen, J. P., Moore, C. M., Kupeminc, G. P., & Bell, K. 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Biederman, J., Faraone, S. V., & Doyle, A. (1993). Convergence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with structured interview-based psychiatric diagnoses of ADHD children with and without comorbid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34, 1241-1251.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5.
- Hoghugh, M., & Speight, A. N. P. (1998). Good enough parenting for all children: A strategy for a healthier society.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78, 293-296.
- Ijzendoorn, M. H., & Sagi, A. (1999). Cross-cultural patterns of attach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713-734).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rris, C., Arrindell, W. A., & Eisemann, M. (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England: John Willy & Sons Ltd. pp 3-26.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44-253.

Wasserman, G. A., Miller, L. S., Pinner, E., & Jaramillo, B. (1996). Parenting predictors of early conduct problems in urban, high-risk boy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227-1236.

Willens, T. E., Biederman, J., Kiely, K., Bredin, E. L., & Spencer, T. (1995). Pilot study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turbances in the high risk children of parents with opioid depend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779-785.

원고접수일: 2001. 1. 10.

수정원고접수일: 2001. 2. 25.

게재결정일: 2001. 5. 10.

Adolescent Attachment Type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 Comparison among incarcerated delinquent group, risk group and normal group -

Jung Oak Yun-hee Oh Hyun-oak Jung

Department of Psychiatry Kangbuk Samsung Hospital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among three adolescent groups(i.e., delinquent group, risk group and normal group) in their attachment type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The delinquent group consisted of fifty incarcerated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risk group consisted of fifty students se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s who belong to the upper fifteen percent of externalizing problem subscale in K-YSR, and the normal group consisted of fifty students who were also randomly selected from high school students without problematic behaviors. The age in all three groups ranged from 15 to 19 year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Demographic questions, Korean-Youth Self Report-CBCL, Self-Report Attachment Style and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and they were administrated in groups at juvenile reformatory and high schools. In attachment types of each group, while the types in the delinquent group were distributed preoccupied type, dismissing type, secure type and fearful type in order, the types in the normal and risk group were distributed secure type, preoccupied type, dismissing type and fearful type in order. The comparison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showed that both of the delinquent and risk group recognized parents' affection and reasoning less than the normal group. This study explored adolescent attachment type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which have much relation with juvenile delinquency, and in particular it suggested that preventive intervention in individual and familial dimension was necessary for risk group to prevent from being delinquent group.

Keywords : attachment, parenting behavior, juvenile delinquency